

“보안 표준화 우리가 나선다”

제품 개발 연계 표준화 절실

…기술 · 개발 등 공유위해 기업간 공동컨소시엄 구성

정보 보안 제품 개발업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 개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제품의 표준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이 기종간의 원활한 연동 구현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인식된 이래 기하급수적으로 생성된 업체들은 이젠 과당경쟁이라는 말과 함께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기업간의 제휴나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 기술과 개발 등을 공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9월 그랜드컨소시엄으로 발족한 사단법인 세인트(SAINT: Security Alliance for Information Network & Technology)이다.

세인트는 현재의 단순 기술 보안 환경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보안 인프라의 형성 및 관리 개념을 포함한 정보보안 신폴러다임을 선보인다는 목표아래 보안업체 및 금융기관 등 11개 업체로 처음 설립되어 현재 17개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표준 API 프로젝트 추진

정보보안 신폴러다임의 첫 단계로 표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는 마무리 테스트 중에 있다. 또한 지난 7월 5일 이와 관련하여 제 1회 세인트 시큐리티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다.

세인트 회장인 마크로 테크놀로지 이성만 사장은 “세인트의 존재를 알리고 향후 세인트의 비전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자리가 됐다”고 제1회 세인트 시큐리티 컨퍼런스를 평했



다.

이러한 세인트의 전반적인 활동은 보안 시장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성만 회장은 설명하고 있다. 즉 보안 제품간의 업계 공동 연구로 인해 표준화 작업을 하고, 그 표준을 업계에 공개하여 불필요한 소모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기술 개발의 진보를 가져다주어 전체적인 보안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러한 공동 조직을 그리 곱게만 보는 것은 아니다.

비회원사 경계심 높아

세인트 비회원사인 한 보안업체 대표는 “세인트가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기업의 목표인 이윤 추구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다 보면 대형의 경쟁업체가 새로 생겨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라 경계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실질적으로 세인트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사는 각 보안업체에서 어느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업체들끼리 연합으로 프로젝트 수주에 나선다면 비회원사인 다른 업체들은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성만 회장은 "일단은 세인트는 영업적인 결속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러한 동기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나쁘게 볼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또한 향후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외국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지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몇몇 업체가 공동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보완적인 시스템을 가져온 적은 있으나 대규모 업체가 참여하여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인트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비영리 사단법인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운영위원회 산하 기획위원회, 기술위원회 등으로 나누어 조직을 한층 체계적이고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종합적인 보안 환경기반 인프라 및 관리를 요구하는 시장의 수요 충족과 동시에 다양한 이종 제품간의 연동 프로토콜 개발을 한층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인트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은 "고객의 전산 관리 및 체계성 확립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표준 API는 아·태 지역까지를 고려한 확대된 프로토콜로서 점진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는 새로운 의의로 평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회원사 17개 업체 참여

향후 세인트는 17개사 회원사간의 우수한 솔루션의 연동 프로토콜 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커뮤니티가 가능한 웹사이트(www.saintgroup.org) 구현 및 각 사의 상호인력 배치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직은 업계에서는 세인트의 성공 여부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최초로 표준화를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임으로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 보안 시장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세인트뿐 아니라 모든 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참여업체는 마크로테크놀로지, 시큐브, 어울림정보기술, 켈플러스한국지사, 지텍인터내셔널, 펜타시큐리티시스템, 케이사인, 코코넷, 한국비엠씨소프트웨어, 펜타시스템테크놀로

지,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지난 해 9월에 함께 참여했고, 그 이후 니츠, 사이버텍홀딩스,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 주택은행, 퓨처시스템, 하우리 등이 참여하여 총 17개 업체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세인트 회원사 소개

▲니츠 주식회사 니츠

1997년 7월에 설립된 니츠는 정보통신부가 선정한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분야 유망정보통신 벤처기업이다. 니츠는 PC 보안 제품인 PC 쉴드 시리즈, 가상 사설망을 구축해주는 VPN 게이트웨이, 보안 취약성 진단도구인 진단도사, 네트워크 불법 사용 통제시스템인 네트워크 쉴드, 중앙에서 종합적으로 정보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TSMS 등의 보안제품을 자체기술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마크로테크놀로지 MACRO Technology

2000년 6월에 설립된 마크로테크놀로지는 정보보안 전문 컨설팅 업체이다. 주로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위험분석, 시스템 분석, 정보보호수준평가, 정보보호부문별 설계, 보안 교육 등 보안 컨설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보안컨설팅(Information Security Consulting Methodology: CUBIC), 정보보안 패키지(산업별 정보 보안패키지), 정보보안 체계운영, 관리 컨설팅(Management Security Service), 정보보안 보험서비스(Risk Management Solutions)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비엠씨 소프트웨어 bmcsoftware

1996년 6월에 한국 비엠씨 소프트웨어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application assurance service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관리, 백업 및 복구, Capacity 및 Configuration 관리, Database Administration, 엔터프라이즈 모니터링, 보안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큐브 SECURE (이시비)

시큐브는 2000년 3월 정보보안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리눅스 보안전문회사로서 OS(운영체제)보안커널에서 IDS(침입


탐지), 안전관리 및 보안진단과 보안컨설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관련제품으로는 홈페이지/파일시스템 해킹방지 솔루션 'Web/File Griffin', 침입탐지시스템 'NetGriffin', Host 취약점 진단/점검 솔루션 Host Pre-Scan 등이 있다.

▲싸이버텍홀딩스  Cybertek Holdings

인터넷관련 토탈 솔루션 제공을 목적으로 1995년 9월 설립된 싸이버텍홀딩스는 정보보안 및 e-BIZ분야의 Total Solution Provider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보보안분야의 제품으로는 네트워크 침입차단시스템 Fire Wall-1 등의 정보보안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Relation Marketing, B2B, B2C 영역별로 제공되는 솔루션인 Commerce Set을 선보이고 있다.

▲어울림정보기술  Firew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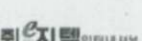
어울림정보기술은 1997년 11월에 설립된 인터넷 보안솔루션 전문업체로 인터넷을 통한 안전한 기업 인트라넷 구축사업과 정보보안컨설팅 및 보안사업을 하고 있다. 주요제품으로는 인터넷 침입차단시스템 SecureWorks Firewall, SecureWorks Appliance와 통합 보안관리 시스템 SecureWorks ESM, 기업의 정보 유출 및 변조방지 시스템SecureWorks VPN, Linux용 침입 차단 시스템SecureWorks ezWall, 서버보안 시스템 Keon Unix Platform Security 등이 있다.

▲유니와이드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는 1992년 네트워크 전문업체로 출발하여, 현재 Fibre Chipset에서부터 대용량 서버, 스토리지, 관련 솔루션까지 자체 설계는 물론 생산 능력을 보유한 국내 최대의 저장장치 전문 제조기업 입니다.

▲주택은행  주택은행

1967년에 설립된 주택은행은 최대의 네트워크와 고객기반을 바탕으로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속의 한국을 대표하는 초우량 은행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다.

▲지택인터넷서널 

1999년 7월에 설립된 지택인터넷서널은 각종 사이버 범죄사고로부터 개인 및 기업의 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자 중심의 보안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Client보안 전문기업이다. 주요

제품으로는 내부의 해킹 및 정보절취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주는 빗장(BITZZANG)제품과 네트워크 방화벽 기능인 패킷 필터링 기능을 PC에서 구현한 PC Firewall 제품으로 해킹 및 불법 침입을 차단 시켜주는 컴퓨월(Compuwall)이 있다.

▲젬플러스  GEMPLUS

젬플러스는 세계적인 스마트 카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이다. 7,870명의 인력과, 16개의 공장, 7개의 연구개발 센터를 갖고 37개국에 44개의 지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주요제품으로는 memory cards, microprocessor smart cards, smart contactless cards, electronic tags 등이 있다.

▲케이사인 

케이사인은 1999년 11월 설립된 정보보호 전문기업으로 정부부처, 공공 및 교육기관을 비롯하여 민간시장과 국제사회까지 공개키 기반(PKI)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관련 주요제품으로는 국내 최초로 공인 인증기관에 적용해 성능 및 안정성을 인정받은 'KsignPKI 전자서명 인증시스템' 등의 PKI솔루션 제품과 전자상거래/기업/정부에 적합한 침입차단 시스템 'NetSafe'가 있다.

▲코코넷 

코코넷은 1999년 9월 설립되어 보안 관련 아웃소싱 서비스인 보안 호스팅 서비스로부터 보안 상태 진단을 위한 클리닉 서비스와 컨설팅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보안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침입탐지와 침입차단, 안티바이러스, 통합 콘솔을 통한 365×7×24 관리 서비스, 침해 사고 발생시 실시간 대응 및 처리, 재해 복구 지원 서비스, 시스템 진단 서비스인 보안 클리닉 서비스 및 정보보안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토탈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펜타시스템 

펜타시스템은 1987년 설립 이래, 국내 최고의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세계 최우수의 솔루션 공급과 자체 솔루션 개발을 통해 한국의 산업 정보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첨단 정보기술의 솔루션 제공과 기술지원, 교육 서비스 등으로 기업의 성공적인 목적 추구를 위해 총체적인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Interview

▲펜타시큐리티 **Penta SECURITY**

1997년 7월에 설립된 펜타시큐리티시스템은 네트워크 보안 전문회사로 네트워크 보안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다. 주로 정보보안 분야에서 전산망 보안 시스템의 연구 및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그리고 전산망 보안 컨설팅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며 개발된 제품으로는 통합 보안 PKI 솔루션(ISSAC), 데이터 암호화 알고리즘(PACA) 그리고 침입 탐지 시스템(Siren)이 있다.

▲퓨처시스템 **F(주)퓨처시스템**

1987년 11월 설립된 퓨처시스템은 인터넷·네트워크 정보 보안 전문기업으로 네트워크보안장비, 보안소프트웨어, 보안컨설팅 등 토털보안 솔루션 서비스를 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H/W와 S/W개발 및 제품출시이며, 관련 주요 제품에는 Secuway Suite, Secuway Gate(VPN전용 하드웨어 시스템), Secuway Card(PC 및 노트북 보안카드), Secuway Center(통합보안 관리센터), Secuway Client(PC 및 노트북 보안 S/W)가 있다.

▲하우리 **HAURI**

1998년 3월 설립된 하우리는 순수 국내 프로그램 개발업체로서 기존 백신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연구/개발 하고 있으며 컴퓨터 바이러스 및 기타의 여러 문제로 인하여 파괴된 시스템 또는 데이터를 복구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복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제품으로는 바이로봇 Management Server 백신 통합 관리 툴, LiveCall 인터넷 온라인 백신, DataMedic 2000 Professional 데이터 복구 솔루션 등이 있다.

▲현대해상 **H 현대해상**

1955년 3월에 설립된 현대해상은 95년부터 독보적인 자동차 보상 서비스 시스템을 자체 개발, 운영해 왔으며 손해보험 산업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타 금융 기관은 물론 국내 각 업종의 대표급 회사 및 인터넷 비즈니스 업체와의 적극적인 제휴 활동을 전개하여 업무 영역 확대 및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였고, 최근 급증하는 e-commerce와 관련된 e-Risk 보험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고객의 요구충족 위해 공동표준화 작업 진행”

사단법인 세인트회장 이성만(마크로테크놀로지 사장)



세인트를 구성하게 된 배경은

보안 솔루션간의 통신해야할 필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는 이기종간의 통신이 어려운 상태이다.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안 API가 필요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제품 표준을 만들기 위함이 세인트 구성 배경이다.

세인트의 주 목적은

우선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공공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정부에게 의존하거나 어느 기업 하나가 스스로 해결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정부만을 의지하거나 기업 혼자서 하기에는 힘이 든다. 따라서 공동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공의 벽을 허물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곧 표준화 작업이다. 또한 이는 보안시장이 커지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결코 영영적인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향후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 국내 업체의 대외 경쟁력을 갖추는데 한 몫을 하게 할 수도 있다.

현재 세인트의 진행 현황은

현재 17개 업체가 모여 참여하고 있다. 보안 API는 진행이 많이 됐다. 따라서 1차버전은 곧 발표 될 예정이다. 현재는 마무리 테스트를 거치는 중이다. 1차 버전 발표 후 1차 버전이 확산되고 안정화되면 내년부터 산업계 표준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세인트가 제시하는 표준이 업계 전체의 표준이 될 수 있을지

표준화를 제시하면 기술적으로 무리가 없다면 후발업체가 패키지 군에 들어올 것이다. 표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이 필요한데 그런 대안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세인트는 무료로 표준을 공개할 것인데,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 정부 역시 민간 업체들이 스스로 표준화 작업을 한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표준화 작업 후 생기는 효과는

구매자들은 보다 편해질 것이다. 또한 관리비용도 감소할 것이다. 현재 보안제품의 추세는 통합되어지는 추세이다.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하나로 통합되어 효과가 있었다. 이밖에도 범용성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표준화 후 생기는 가장 큰 효과는 확장성과 호환성 높아진다는 것이다